

와인의 기준을 바꾸다… 돈 멜초, 펜폴즈 그리고 또



“수천 달리짜리 부르고뉴 와인이나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카베르네 소비뇽 컬트와인은 이제 잊어라. 와인업계 혁신가들은 단 하나의 고집스러운 아이디어로도 포도품종은 물론 와인 산지, 그리고 우리가 와인을 마시는 방식 그 자체도 바꿔버릴테니.”

세상을 바꾼 와인을 꼽으라 하면 와인 종주국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이나 컬트 와인, 슈퍼 투스칸 등을 떠올리겠지만 정작 와인 지도를 다시 그려놓은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신념으로 밀어붙인 와인 메이커와 그의 손에서 태어난 와인들이었다.

포브스가 ‘세상을 바꾼 10대 와인’을 선정했다. 칠레의 ‘돈 멜초(Don Melchor)’를 비롯해 ‘두카 엔리코’, ‘브리코델 우첼로네’, ‘클라우디 베이 소비뇽 블랑’, ‘디디에 다크노 실렉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한 알, 한 알을 소중히 여겼다. 어떤 와인은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 끝에 나왔고, 어떤 와인은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됐다. 공통점이라면 이들이 와인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고 흥미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 멜초 2021 빈티지와 빈야드.

펜폴즈가 처음으로 선보인 그랜지 1951년 빈티지. /금양인터내셔널

콘자 이 토로의 돈 멜초는 칠레 와인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와인이다. 프랑스, 아니 더 넓게는 유럽이 아닌 와인 산지에서도 프리미엄 와인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줬다.

포브스는 돈 멜초를 선정하며 “칠레 와인은 품질보다는 대량 생산으로 알려져 지난 수십 년 간 구대륙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돈 멜초의 출시로 그 흐름이 절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비단 돈 멜초의 수석 와인메이커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엔리케 티라도(Enrique Tirado)는 “돌이켜보면 이 와인을 변화의 주역으로 만든 것은 칠레에서도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겠다는 비전과 전문성, 그리고 독보적인 테루아의 결합이었다”고 밝혔다.

돈 멜초는 칠레에서도 푸엔테 알토(Puente Alto) 포도밭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했다. 자갈 토양과 안데스의 영향으로

카베네 소비뇽을 재배하기 최적의 곳이었다. 1984년 당시 돈 멜초의 와인메이커는 푸엔테 알토에서 재배한 카베르네 소비뇽 샘플을 프랑스 보르도로 가져가 전설적인 양조학자인 에밀 페노에게 보여줬고, 1987년에 돈 멜초의 첫 번째 빈티지가 세상에 나왔다. 보르도 양조 방식을 모델로 삼았지만 칠레 고유의 기후와 토양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포브스는 “오늘날에는 칠레의 많은 와인메이커들이 마이포 밸리에서 아콩 카구아에 이르기까지 돈 멜초와 같지 특정 산지의 특징을 잘 살린 카베르네 소비뇽을 양조하고 있다”며 “돈 멜초는 칠레 카베르네 소비뇽을 컬렉터들이 소장할 만한 와인의 반열로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와인 전문 매체인 와인 스페셜리티는 ‘2024년 100대 와인’에서 돈 멜초 2021 빈티지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돈 멜초가 테루아의 힘으로 산지의 한계를 넘었다면 다른 와인 신세계 호주에서는 펜폴즈가 ‘그랜지(Grange)’로 품종과 양조 방식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다.

먼저 품종이다. 유럽에서 프리미엄 레드 와인이라고 하면 기본이 되는 카베르네 소비뇽을 벗어나 호주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쉬라즈 품종으로 승부했다.

양조 방식 역시 기존 프리미엄 와인이 특정 지역, 또는 더 넓게는 특정 포도밭에 한정하지만 그랜지는 여러 지역, 다양한 포도밭의 포도로 만든다. 포도가 어디서 자랐든 오직 맛으로만 평가한다는 개념이다. 포도밭의 작은 구획을 말하는 파셀 약 1000곳에서 포도를 수확해 등급을 나누고, A등급을 받은 포도만 그랜지에 쓰인다. 고유의 스타일에 맞춰 매년 최고의 포도를 골라 만들다보니 쉬라즈 품종이 가진 장기 숙성 잠재력과 복

합미는 극대화됐고, 전 세계 와이너리들에게 한계를 넘어야 했던 창의적인 양조를 시도하게 만든 영감이 되었다.

금양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돈 멜초와 펜폴즈는 기존 명성 높았던 와인들에게

강력한 자극이 되었고, 좋은 와인의 기준이 유럽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몸소 증명해 냈다”며 “이들 와인은 각자의 혁신을 통해 전 세계 와인 지도를 다시 그렸으며,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콘으로서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와인 지도는 여전히 미완성이 다. 어딘가에선 펜폴즈의 쉬라즈처럼 그 곳만의 국가대표 포도품종이 자라고 있고, 또 다른 와인 산지에선 어느 혁신가만의 돈 멜초가 만들어지고 있을 터. 우리들의 할 일은 단 하나다. 경계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즐기면 되는 것.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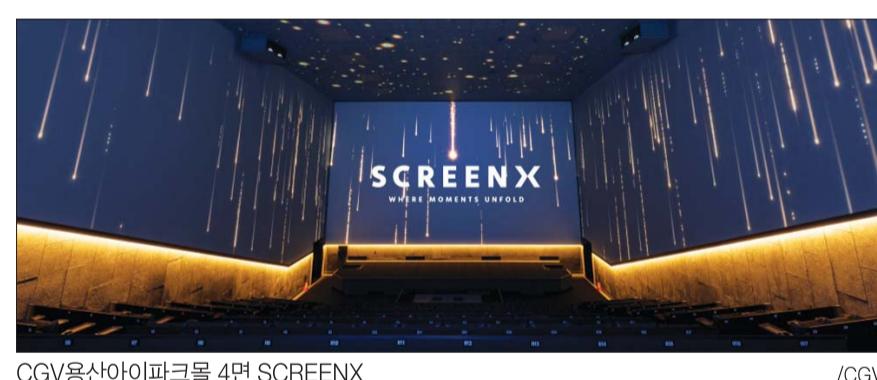
영화감상에서 체험으로… 특별관·N차 관람이 대세

CGV 데이터전략팀, 영화시장 분석 지난해, 5명 중 1명 ‘특별관’ 이용 재관람 ‘N차’ 흥행 주요 동력으로

국내 영화 시장에서 특별관과 ‘N차 관람’이 흥행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 관람을 넘어 경험을 소비하는 트렌드가 본격화되면서 극장 이용 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CGV 데이터전략팀은 5월 2025년 국내 영화 시장 분석을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CGV 방문 고객 5명 중 1명 이상이 특별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관 관람이 일부 마니아층의 선택지를 넘어 일반 관객에게도 하나의 ‘표준 경험’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별관 이용 고객의 특성도 뚜렷했다. 4DX는 10·20대 여성 관객 비중이 높았고, SCREENX와 ULTRA 4DX는 20·30대 관객 중심으로 이용됐다. 공통적으로 3인 관람 비중이 높아 개인 관람보다는 친구·연인·가족, 나아가 팬덤



/CGV

단위의 동반 관람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극장이 단순 상영 공간을 넘어 함께 체험하는 소비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재관람을 뜻하는 ‘N차 관람’ 역시 흥행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2025년 전체 개봉작의 N차 관람 티켓 비중은 6.2%였지만, 흥행 상위 10개 작품의 경우 7.5%로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극장 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F1 더 무비’,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등은 N차 관람 비중이 10%를 넘기며 재관람 수요가 흥행을 주도한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이들 작품의 N차 관람 중 특별관 이용 비중은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포맷별로 차별화된 체험이 관객의 재관람 욕구를 자극하고, 같은 콘텐츠를 반복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는 분석이다. 관객층의 변화도 눈에 띈다. CGV 방문객 연령대 분석 결과 10대와 50대 이상 관객 수가 증가했으며, 두 연령층 모두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해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관객 증가는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ICEC ON 등 팬덤형 얼터콘텐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예스24, 지난해 공연 티켓 판매액 30% 증가

공연티켓 판매액 5년 연속 증가세 콘서트·뮤지컬 등 전 장르 수요 확대 2030세대 70.1%, 여성관객 77.8%

2025년은 세계적인 뮤지컬의 내한 공연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국내 초연 작품,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대형 콘서트, 그리고 인기 캐릭터와 거장 작가를 조명한 전시들까지 더해지며 공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한 해였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2025년 공연 티켓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공연 티켓 판매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콘서트와 뮤지컬, 연극, 클래식, 전시 등 전 장르에서 고른 수요 확대가 나타난 점이 눈에 띄었다.

예스24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 티켓 판매액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콘서트 분야는 DAY6, 스톤레이 키즈, 백현, 이찬원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전국투어와 팬미팅, 콘서트 등 대형 공연이 잇따르며 전년 대비 36.1%

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월별로는 연말을 앞두고 주요 콘서트 티켓 오픈이 집중된 11월이 연중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다.

연극 분야 역시 글로벌 흥행작과 화제작이 고르게 성과를 냈다. 웨스트엔드 화제작 ‘미러’의 한국 초연과 아시아 최초 10주년을 맞은 ‘엘리펀트 송’ 등이 관객의 호응을 얻으며, 2025년 연극 분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 분야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몰입형 전시로 눈길을 끈 ‘문도 광사: 광사, 상상의 세계로’와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전시가 폭넓은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전년 대비 406%라는 큰 폭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했다.

예스24 전체 티켓 구매자 분석 결과, 2030년 대비 70.1%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여성 관객 비중이 77.8%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2030년 여성 관객층이 공연 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자리 잡은 흐름은 2025년에도 이어졌다. /신원선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EU, 우크라에 155조원 차관 합의… “4월초 첫 지급 목표”

▲위성락, ‘美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안보 패키지에도 영향 줄 가능성 우려”

/사진 뉴시스

▲中 청화대, 보스턴 캠퍼스 추진에 엡스타인 도움 요청…미중 갈등으로 무산

▲트럼프 “연방 이민 단속 확대…5개 도시 유력 검토 중”

▲유엔 대테러 사무국, 이슬람국가 테러 위협 증가에 경고

▲동계올림픽 출전 러시아 선수들, 전쟁 지지 활동 드러나 논란